

369. 죄 짐 맡은 우리구주

1 죄짐맡은 우리구주 어찌 좋은 친구지  
 걱정근심 무거운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고함 없는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줄을 모를까

2 시험걱정 모든괴롬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진실 하신친구 찾아 볼수 있을까  
 우리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 아뢰까

3 근심걱정 무거운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예수 주께 기도 드리세  
 세상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 하여도  
 예수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527. 어서 돌아오오

1 어서 돌아 오오 어서 돌아만 오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어찌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2 어서 돌아 오오 어서 돌아만 오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 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3 어서 돌아 오오 어서 돌아만 오오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 해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 오오 어서

기도 담당

11/28(화)	11/29(수)	11/30(목)	12/1(금)	12/2(토)	12/4(월)
임찬섭 안수집사	김종진 안수집사	석철원 안수집사	이범우 안수집사	김봉철 안수집사	신 승 안수집사

이른아침예배

인도 : 임종희 목사

예배를여는말 ..... 인 도 자  
 신 앙 고 백 ..... 사도신경 ..... 다 함 께  
 찬 송 ..... 369장 ..... 다 함 께  
 기 도 ..... 김기환 안수집사  
 성 경 봉 독 ..... 예레미야 3:21~25 ..... 인 도 자  
 찬 양 ..... 희망의 대림 ..... 새벽찬양대  
 설 교 ..... 『기다리시는 하나님』 ..... 임종희 목사  
 기 도 .....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 ..... 다 함 께  
 찬 송 ..... 527장 ..... 다 함 께  
 축 도 ..... 설 교 자

☞ 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3:21~25>

21. 소리가 험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라
22.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 니이다
23.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24.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 떼와 소 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켰사온즉
25.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 음이니이다

## 새문안교회 이른아침예배 기도문

2023년 11월 27일(월)

한없는 은혜로 우리들의 삶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도 우리들이 주님을 배반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예수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 고백하고서도 나의 삶도 과연 그러한가 생각하며 다시금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대로 살기를 더욱 힘쓰게 하시옵소서. 한번만 더 생각해보면 그 결과 어떠한지 잘 알면서도 아버지의 뜻을 버리고 살아왔던 지난 날을 회개하며 한번 더 생각하여 은혜의 길을 선택하여 우리의 일상이 복음의 가치를 증거하게 하시옵소서. 이 아침에 예배드리며 주께서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복되게 하시옵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누리고 증거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창조질서를 어지럽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순리대로 살기를 거부하면서도 부끄러운줄 모르고 사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 우리 민족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이 가치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념과 사상 그리고, 누구 편인가를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감싸 안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살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온 세상에 우리 민족을 통하여 주께서 펼쳐가실 역사를 이뤄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른아침에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교회를 향하는 모든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시옵고,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